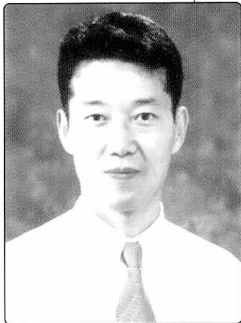


SoftNet

# S/W 스트리밍 기술로 신화창조 예감



박성준 대표이사

소프트온넷이 개발한 '지스트림'은 분산가상페이징(Distributed Virtual Paging)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솔루션으로 지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소프트웨어 신상품대상 수상 및 정보통신우수기술지정 등 4차례에 걸쳐 기술력을 인정 받은 바 있다.

특히 '지스트림'은 스트리밍 서버에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두고 웹 또는 내부망을 이용한 인증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구동 방식은 사용자에게는 사용의 편리성을, 관리자에게는 관리의 효율성 및 관리 비용의 절감 효과를 제공한다.

특히 스트리밍 방식의 장점 중 하나인 'No Install'은 개별 PC에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치하지 않으므로써 사용자에 의한 불법 복제를 원천적으로 차단, 다른 방식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도구에

비해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탁월하다.

이러한 기술력이 빛을 발해 '지스트림'은 지난 2004년 신소프트웨어 상품대상 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을 비롯해 그해 7월에는 미국의 유명 벤처 전문지인 Redherring의 Catch of the Day 컬럼에 언급됐고, 8월에 TTA의 품질 인증 과정을 통해 "Good Software"마크도 획득했다.

소프트온넷은 지난 2004년 자사의 일본 현지법인을 통해 일본 75개 소학교에 이 솔루션을 공급한 데 이어 프랑스 비벤디 유니버설 스튜디오에도 공급하는 등 해외에서 활발한 영업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 기술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계의 반발도 심했다. 한때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방식은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로부터 저작권 침해 논쟁에 휘말리기도 했었다. 특히 2004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들까지 가세,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크게 이슈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8월 정보통신부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로부터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방식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유권 해석을 얻어냄으로써 저작권 침해 논쟁에 일단락을 짓게 됐고, 현재는 활발한 영업을 재개하고 있다.

소프트온넷은 '지스트림' 영업 초기 시절, 대학을 중심으로 확산하다가 2003년부터는 기업 및 공공서에도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현재 소프트온넷은 국내 기업/관공서/교육기관 등 150여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그 중 'KT비즈메가'와 '더존'은 지스트림을 이용해 자사의 ERP 솔루션을 ASP 서

'소프트웨어 도서관'이라는 특이한 컨셉으로 국내외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IT 기업이 있다. 바로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전문기업인 소프트온넷(대표 송동호)이 그 회사. 소프트온넷 송동호 대표는 항공대 교수로 재직 시절인 99년 제자들과 함께 지금의 회사를 창립해 ETRI와 카이스트 등과 협력, 국책과제를 떠맡는 등 스트리밍 기술에 관해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손꼽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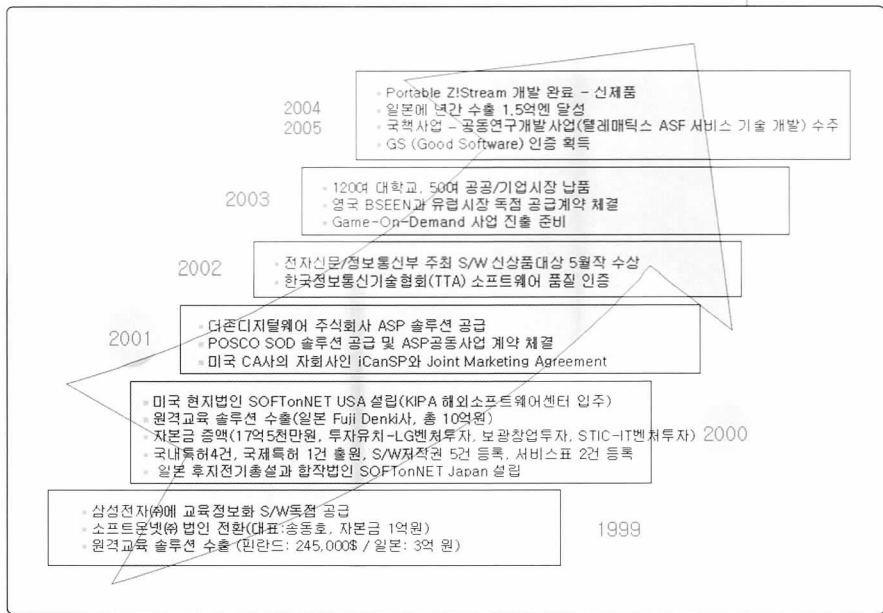
글 | 임일곤 기자모바일타임스. igon@itn.co.kr

비스를 하고 있다. '더존'이 서비스하고 있는 회계 프로그램 '네오플러스'는 전국 회계사 사무실의 80% 이상이 사용하고 있으며 전체 사용자가 5만 명에 달한다.

지스트림의 인기는 국내를 넘어 일본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소프트온넷의 일본 지사(소프트온넷재팬)에서는 지스트림과 더불어 원격교육 솔루션인 'EZs커뮤니케이션'과 데이터 보호·복구 솔루션인

'드라이브셀터' 등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소프트온넷재팬은 일본지방교육청을 대상으로 1억 천만엔(약12억원) 규모의 지스트림 일괄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현지에 100여 곳의 고객을 확보해 놓기도 했다. 이는 국내 교육시장 영업에도 좋은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MS 재팬과 소프트온넷재팬이 지스트림을 이용, 공동 개발해 판매 중인 제품 'SAS'도 교육기관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방식은 올해 초 'IT 분야의 9대 신성장동력'으로 선정돼 정보통신부/ETRI/소프트온넷의 주도로 범국가적 '서비스온넷 시스템' 및 '텔레메틱스 시스템' 등의 공동연구를 진행되고 있다. 이 방식은 국가정책을 도로나 송유관 같은 국가기간망화 한다는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다.

소프트온넷의 비전은 온 국민이 양질의 콘텐츠를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종량제를 실현해 그 기술과 모델을 세계 시장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소프트웨어 사용 및 공급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벤처업계의 작은 돌풍이 전 세계 시장의 폭풍으로 이어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K**

